

# 허무주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 A Reflection on Nihilism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최용준(Yong Joon (John) Choi)

### ABSTRACT

Nihilism is a worldview which basically denies any meaning of life. It is, therefore, atheism, denying the existence of God and is connected with secular humanism as well. However, this nihilism is still very active through internet website(nihil.org, abissonichilista.altervista.org) etc. Even though this worldview has some attractive aspects, it has critical weak points, too. This article, therefore, discusses the concrete contents of nihilism first and then mentions the representative thinkers such as F. Nietzsche. After that, not only positive aspects but also negative points are critically evaluated. In conclusion, an attempt is made to offer alternatives to the weak points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Keywords:** nihilism, atheism, humanism, Nietzsche, Christian worldview

## I. 서론

허무주의(虛無主義, Nihilism)란 신의 존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도 부정하는 세계관이다. 모든 가치들은 근거가 없으며 아무 것도 알 수 없고 소통할 수도 없다고 믿는다.<sup>1)</sup> 'Nihil'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무(無, nothing)'를 의미하며 기존의 가치체계와 이에 근거를 둔 모든 권위를 부인하고 음산한 '허무'의 심연을 직시하며 살려고 하는 세계관으로 본질적으로 무신론이며 따라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다.

이 세계관은 예술에도 나타나는데 가령 뒤상(Henri Duchamp, 1887-1968)의 “샘(Fountain)”이라는 작품과 베켓(Samuel Beckett, 1906-1989)의 “호흡(Breath)”이라는 연극에서 볼 수 있다. 뒤상의 작품은 남자 소변기를 뒤집어놓고 “샘”이라고 한 것인데 이를 예술적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 물건을 샘으로 사용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베켓의 연극에는 어떠한 배우도 나타나지 않고 다만 40초 정도의 숨 쉬는 소리만 들린다. 왜냐하면 베켓은 삶이란 단지 이러한 숨소리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허무주의 등장의 배경은 우주·인생의 진상을 무(無)에서 보려고 하는 동양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가령 노장(老莊)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이나 불교의 제행무상(諸行無常) 사상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서양에서 하나의 독립된 세계관으로 등장한 허무주의는 19세기 중엽 이후로부터 현대에 걸친 서구 사회의 특유한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곧 신의 초월성만 인정하고 내재성을 부인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이신론(理神論, Deism)과 나아가 신의 초월성마저 부인하고 물질주의적이고 기계론적 세계관을 주장한 자연주의(自然主義, Naturalism)에 기초한 서구 근대 시민 사회의 가치체계가 붕괴하고 그 후에 올 미래의 가치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없는 역사의 위기적 전환기에서 자연주의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자연주의가 허무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연주의가 인간에게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주의는 타고난 자기 의식적인 특성 위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력을 지닌 존재의 가능성을 부인한다. 인간은 단지 하나의 기계이며 자기의식과 자기 결정력이 있는 인격이 아니기에 결국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을 실존적 허무주의(existential nihilism)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주의가 허무주의를 낳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자연주의가 가진 실존적 허무주의는 인식론적 허무주의(epistemological nihilism)를 낳기 때문이다. 즉 이 세상이 우연에 의해 존재한다면 우리의 인식도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고 나아가 우주의 존재와 실재도 의문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연주의는 형이상학적 또는 존재론적 허무주의(metaphysical or ontological nihilism)를 낳게 된다. 나아가 자연주의가 허무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진정한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자연주의자들에게 세계란 단지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의 기준 또한 이 존재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존재에서 당위를 도출하는 것은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존재는 매우 상대적이며 따라서 윤리 또한 상대적인 상황윤리가 되기 때문이다. 가령 ‘전쟁’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 전쟁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허무주의는 아무런 도덕적 가치가 없으며 궁극적인 심판자가 없다. 이것은 윤리적 허무주의(ethical nihilism) 또는 무규범성(anomie)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허무주의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abissonichilista.altervista.org 및 nihil.org가 있다. 이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깊이 다룬 학자는 사이어(James Sire)인데<sup>2)</sup> 그 외에 이 주제를 깊이 다룬 학자나 문헌은 별로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사상을 분석하되 먼저 이 세계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찰한 후 대표적 사상가들을 언급하고 이 세계관의 장단점들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이 세계관의 약점들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한 후 결론을 맺겠다.

1) <https://www.iep.utm.edu/nihilism>.

2) James Sire,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 View Catalog*,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2009).

## II. 허무주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 1. 허무주의 세계관의 기본 내용

허무주의의 기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참된 최고의 실재는 “무(nihil)”라고 주장한다. 모든 것은 우연이며 따라서 무의미하며 모든 형이상학과 신학을 부정한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허무주의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기계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허무주의 철학자였던 니체(Friedrich Nietzsche, 1844-1900)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sup>3)</sup> 무신론 및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강조했으며 이런 점에서 사이어는 허무주의를 ‘영점(零點, zero point)’이라고 표현한다.<sup>4)</sup>

둘째,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도 허무주의는 “무”라고 주장한다. 자연주의와 같이 우주는 폐쇄체계 안에서 인과율의 일치체라고 보면서도 그 의미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자연주의는 인간의 인식과 지식도 물질 작용의 결과로 보며 의식 또한 고도로 잘 조정된 물질의 복잡한 상호 관계에서 나온다고 본다.<sup>5)</sup> 인간의 지식이 참임을 확신하려면 그 인간은 그 지식 밖으로 나가 보거나 외부의 어떤 존재가 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외부에는 아무 것도 없기에 인식론적으로도 허무주의가 된다.

셋째,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허무주의는 인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본다.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나아가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폐쇄된 우주에서 모든 것이 인과율에 의해 결정된다면 인간에게 자유란 불가능하며 인간은 우주의 한 부품일 뿐이며 인간의 의식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가 에덴동산에서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베케트의 숨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실제로 니체는 10년간 정신병으로 고생하다 생을 마쳤고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가졌던 미국의 소설가 헤밍웨이(Ernest Miller Hemingway, 1899-1961)도 스스로 생명을 포기한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인간이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이성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어떤 사람이 비인격적인 힘의 결과로 우연히 존재한다면 그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식 자체도 부정되고 불가능하게 된다. 가령 다윈의 주장처럼 인간의 뇌가 고등한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면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 이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확신할 수도 없을 것이다.<sup>6)</sup>

다섯째, 윤리 또한 허무주의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연주의는 인간을 상대적 윤리 안에 가두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주의에서는 어떤 기준도, 표준도 존재하지 않기에 결국 윤리적 허무주의로 빠지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어는 허무주의를 하나의 철학으로 보기 보다는 하나의 감정이라고 표현하면서<sup>7)</sup> 카프카(Franz Kafka, 1883-1924)의 작품 “보초(The Watchman)”에서 사람이 지나가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비병을 인용한다.<sup>8)</sup>

여섯째,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도 허무주의는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못한다. 역사는 아무런 목적성이나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주의 기원, 인간의 인식 그리고 윤리적 삶의 어떤 의미도 알 수 없는 인간은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3) Friedrich Nietzsche, *Die fröhliche Wissenschaft*, Aphorismus 125. “Der tolle Mensch” (Nikol, 2017).

4) Sire, *The Universe Next Door*, 김현수 역, 『기독교와 현대사상』 (서울: IVP, 2007) 123.

5) 자연주의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는 Sire의 책 제 4장 참고.

6) Ibid.

7) Ibid., 147.

8) Franz Kafka, “The Watchman”, *Parables and Paradoxes* (New York: Schocken Books, 1961) 81.

## 2. 대표적인 허무주의자들

‘니힐리즘(nihilism)’이라는 단어는 독일의 철학자 야코비(Friedrich Heinrich Jacobi, 1743-1819)가 합리주의, 특히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비판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하였는데 철학을 비판주의로 보는 모든 합리주의적 사상은 결국 허무주의로 귀결된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야코비는 어떤 종류이든지 신앙과 계시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9)</sup> 하지만 그 후 독일의 대표적인 관념철학자인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의 절대정신(絕對精神, Der absolute Geist) 철학에 반발하여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의 염세주의(pessimism)적이며 무신론적 철학이 등장하였고 그는 니체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나아가 철저한 유물론자였던 포이에르바흐(Ludwig Feuerbach, 1804-1872)의 무신론은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무정부주의적 세계관을 낳았다.<sup>10)</sup>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Иван С. Тургéнев, 1818-1883)는 『아버지와 아들』에서 주인공 바자로프가 철저한 과학적 실증주의 입장에서 일체의 기성질서나 가치의 권위를 부정하므로 그를 ‘니힐리스트’라고 명명한 이후부터 이 허무주의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sup>11)</sup> 나아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Фёдор Миха́йлович Достоевский, 1821-1881)는 『악령』에서 무신론자가 되어 허무주의에 영혼을 빼앗긴 젊은 지식인들이 체제전복을 위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무차별적 폭력과 선동에 몰두하다가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sup>12)</sup>

허무주의를 명확한 세계관으로 정립한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였다. 그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고귀한 자가 비소(卑小)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본래의 가치 체계라고 하는 권력의지설(權力意志說, *Der Wille zur Macht*)의 입장에서 니힐리즘을 분석하면서 ‘수동적(受動的) 허무주의(Der passive Nihilismus)’와 ‘능동적(能動的) 허무주의(Der aktive Nihilismus)’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허무한 현실을 회피하고 향락주의나 이기주의 등 퇴폐적 삶으로 공허감을 채워보려는 관점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소모적인 현실 도피의 삶을 거부하고 허무의 뿌리 한가운데로 적극 개입함으로써 허무의 현실을 초극하려는 것이다. 모든 현존하는 가치나 질서가 가진 절대적 권위를 파괴해 갈 때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자유로이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썩든다고 본다. 우상(偶像)의 가면을 벗기는 하나의 도구로 무(無)를 내세움으로써 무를 적극적인 창조 원리로 전환시켜 나가는 이 ‘능동적 허무주의’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당연한 생활 방식이라고 니체는 강조했다.<sup>13)</sup> 나아가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 가치, 종교 혹은 이상주의 등의 신앙이 상실된 상태로 허무주의의 본격적인 도래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근대적 가치와 도덕 및 신앙을 뛰어넘는 인간을 니체는 ‘초인(超人, Übermensch)’이라고 불렀다.<sup>14)</sup>

최근에도 이 세계관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데 가령 미국의 브렛 스티븐스(Brett Stevens)는 허무주의에 관한 책을 출판했고<sup>15)</sup> 웹사이트(nihil.org)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생각들을 제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놀런 헤르츠(Nolen Gertz)도 허무주의와 기술과의 관계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sup>16)</sup>

9) F. H. Jacobi, *Friedrich Heinrich Jacobi's Werke*, Vol. 1. (Forgotten Books, 2019), 216-223.

10) Ludwig Feuerbach, *Das Wesen des Christentums*, (Anaconda Verlag, 2014).

11) 이반 투르게네프 저/이항재 역, 『아버지와 아들』 (서울: 문학동네, 2012).

12)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저/김연경 역, 『악령』 (서울: 열린 책들, 2009).

13) Friedrich Nietzsche, *Der Wille zur Macht*, (Jazzybee Publishing, 2012).

14) Friedrich Nietzsche, *Also sprach Zarathustra*, (Bern: schattenlos Verlag, 2019), 7.

15) Brett Stevens, *Nihilism: A Philosophy Based In Nothingness And Eternity*, (Manticore Press, 2016).

16) Nolen Gertz, *Nihilism and Technology*, (Rowman & Littlefield International, 2018). *Nihilism*, (The MIT Press, 2019). 이러한 최근 동향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3. 허무주의의 장점들

하지만 허무주의의 세계관이 나름대로 가진 장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되 특히 니체가 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허무주의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겠다.

첫째로 적극적인 허무주의는 과거의 권위주의를 파괴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자기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일단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은 무의미하게 생각하면서 이를 무시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가능성을 나름대로 진지하게 시도해 보는 것이다. 나아가 이 세계관은 장차 무엇이 닥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현재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니체는 이것을 ‘운명애(運命愛, *Amor fati*)’라고 불렀다.<sup>17)</sup> 그는 이 능동적 허무주의를 통해 소모적인 현실 도피의 삶을 거부하고 허무의 뿌리 한가운데로 적극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허무한 현실을 초극하려 했다. 그는 모든 현존하는 가치나 질서가 가진 절대 권위를 파괴해 갈 때에만 새로운 가치를 자유로이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새롭게 싹튼다고 주장하면서 우상(偶像)의 가면을 벗겨내는 하나의 도구로 무(無)를 내세움으로써 무를 단순한 생의 소모원리(消耗原理)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창조의 원리로 간주했다. 이러한 자세는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니체는 주장하였다. 이것은 결국 “당신은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통적 가치를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자유적 가치로 변혁시킴을 의미한다. 이는 그 후에 주체성을 강조한 실존주의(實存主義, Existentialism) 세계관을 낳게 되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능동적인 허무주의는 기존의 철학이나 세계관들을 모두 부정한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존 사상들은 이 현실을 넘어 불변하는 세계만 가치가 있고 이 현실 세계는 허무하므로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허무주의는 이러한 구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창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현실 세상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이 능동적 허무주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현실을 부정하고 체념하는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적극 대처하려고 하는 매우 진지한 자세를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니체는 그만큼 나름대로 치열한 고민을 하면서 앞서 나타났던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가졌던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쳤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현실 도피적인 무관심주의나 찰나적인 향락주의보다는 훨씬 더 진지하고 성실한 세계관 및 생활 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허무주의의 장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로 능동적인 허무주의는 이후에 나타난 다른 세계관들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무정부주의(anarchism) 같은 세계관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무정부주의자들은 인간이 원래 선한 존재였으나 정부의 권위가 불평등을 낳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체제를 파괴하고 개인의 절대적 자유가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니체의 사상이 본래 국가 지향적 관점을 개인적 관점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며 이는 후에 나타난 실존주의와도 연결된다. 나아가 이 적극적 허무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에도 영향을 주었다. 모더니즘이란 합리적이며 남성 중심적이고 백인 우월적이며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세계관이었으나 포스트모더니즘은 개인의 감정, 유색인종, 여성 및 소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며 과학기술의 폐단도 비판하였다. 이처럼 허무주의는 앞서 풍미했던 자연주의의 논리적 귀결인 동시에 이 세계관을 철저히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려했기에 실존주의 및 포스트모더니즘을 낳게 되는 산과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17) Friedrich Nietzsche, *Die fröhliche Wissenschaft*, Aphorismus 276. (Berlin: Karl-Maria Guth, 2016), 159.

18) 능동적 허무주의와 무정부주의, 실존주의 및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4. 허무주의의 단점들

그렇다면 허무주의적 세계관이 가진 약점들은 무엇인가? 다섯 가지로 살펴보겠다. 사이어가 잘 지적하듯이 무엇보다 먼저 무의미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나올 수 없거나 아니면 반대로 무엇이든지 나올 수도 있다. 만일 우주가 무의미하고 인간에게 지적인 능력이 없으며 부도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행동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런 행동도 가능할 것이다. 조금이나마 적합한 것이 전혀 없기에 어떤 행동을 해도 무방한 것이다. 가령 자살도 하나의 행동이며 이에 대해 가치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sup>19)</sup>

둘째로 어떤 허무주의자가 생각하고 그 자신의 생각을 신뢰한다면 이것은 일관성이 없게 된다.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가치 없고 지식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이미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무주의자가 어떤 한 가지라도 긍정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자기모순이다. 우주에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면 단 한 가지의 어떤 긍정도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허무주의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sup>20)</sup> 이 세상에 어떤 존재나 의미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이러한 주장 자체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무주의는 사실상 상자 안에 갇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상자를 벗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허무주의자는 그저 존재할 뿐이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 허무주의자가 일관성 있는 허무주의적 행동을 한다면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철저히 일관성을 가진 허무주의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sup>21)</sup> 다시 말해 폴 헤가르티(Paul Hegarty)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 자체도 하나의 의미를 가진 주장이라는 점에서 허무주의는 역설적 논리에 빠지고 만다.<sup>22)</sup>

셋째로 제한된 형태의 실천적 허무주의도 잠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결국 한계에 봉착하고 만다. 가령 신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신이 어떤 종류의 신이든지 간에 부정할 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부정할 것이 실제로 아무 것도 없다면 무엇을 부정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을 부정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아무 것도 없는데 무엇을 부정한다는 말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므로 허무주의는 결국 자가당착적 냉소주의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sup>23)</sup>

넷째로 허무주의는 예술에도 종말을 고한다. 많은 현대 예술은 허무주의를 사상적 주제로 삼고 있다. 가령 베케트의 『게임의 종말』(Endgame)<sup>24)</sup>, 카프카의 『심판』(Der Prozess)<sup>25)</sup>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작품들 자체가 무의미하다면 이 작품들에 대해 어떤 예술성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모든 예술품들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 구성은 일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가령 베케트의 “숨소리”조차도 나름대로의 구성과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즉, 이 작품이 인간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역설적 시도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있으므로 비허무주의적이라는 것이다.<sup>26)</sup>

마지막으로 허무주의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유발시킨다. 사람은 본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일관성 있게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허무주의를 외쳤던 니체가 10년간 정신병원에 있다가 생을 마감한 것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허무하게 보이는 일상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매우 의미 있게 경험되는 순간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허무주의는 그것이 비록

19) Sire, *The Universe Next Door*, 김현수 역, 『기독교와 현대사상』 152.

20) Ibid., 153.

21) Ibid.

22) Paul Hegarty, "Noise Music" *The Semiotic Review of Books*. 16(1-2):2. (Ontario: Lakehead University. 2006).

23) Sire, *The Universe Next Door*, 김현수 역, 『기독교와 현대사상』 153.

24) Samuel Beckett, *Endgame and Act Without Words*, (New York: Grove Press, 2009).

25) Franz Kafka, *Der Prozess*, (Anaconda. 2006).

26) Sire, *The Universe Next Door*, 김현수 역, 『기독교와 현대사상』 155-6.

능동적인 허무주의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진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절망을 주기가 더 쉽다.<sup>27)</sup>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을 동양적 세계관인 도교의 노자 및 장자의 사상 그리고 불교에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점을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결국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허무주의자들의 비극적인 종말이다. 만약 우리의 삶이 허무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으며 살면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니체 외에도 헤밍웨이 및 카프카 같은 허무주의자들은 결국 자살 등 불행한 종말을 맞이한 것이다.

허무주의의 문학 작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허무주의자들에 의해 쓰인 작품들 중 앞서 언급한 여러 작품들 외에도 가령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sup>28)</sup>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의 허무성을 강조하는 허무주의에 기초한 문학 작품에 대해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문학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창조하고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허무라는 무가치를 강조하는 작품 자체의 의미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 5. 허무주의의 단점들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

허무주의의 이러한 약점들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먼저 무의미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나올 수 없거나 아니면 반대로 무엇이든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만일 허무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삶의 기준과 가치가 없어지므로 결국 혼돈(chaos)으로 빠지고 그러한 사회는 파멸되고 말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이러한 허무주의에 대해 우리는 최소한 인간 사회의 존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삶의 필요성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들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가치판단이 존재한다. 이것이 없다면 삶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게 되고 우리 모두는 니체나 헤밍웨이와 같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종말이 과연 진정한 대안이라고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대부분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 명백한 증거는 지금 이 세상에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능동적인 허무주의에는 다소 긍정적 요소들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허무주의는 자연주의가 실존주의로 넘어가는 하나의 중간 단계였고 잠시 나타났던 세계관이지 지속적일 수 없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허무주의를 실천하는 것 자체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허무주의의 가장 분명한 대안은 허무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허무주의자가 자신의 생각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가치 없고 참된 지식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이미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허무주의자가 한 가지라도 긍정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자기모순이 된다. 우주에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긍정도 불가능하다. 즉 허무주의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자기모순이므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자기모순을 내재하고 있는 허무주의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은 허무주의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모순이 없는 다른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에서 실존주의가 등장했고 이 실존주의가 발전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이 되었다. 하지만 이 두 세계관들도 여러 약점들이 있으며<sup>29)</sup> 따라서 이와 다른 세계관

27) Ibid., 156-7.

28) Samuel Beckett, *Waiting for Godot: A Tragicomedy in Two Acts* (New York: Grove Press, 2011).

29) 이 부분은 별도의 논문을 통해 앞으로 다루고자 한다.

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매우 정교한 디자이너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고 그 안에는 의미와 가치도 발견된다는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삶의 기준이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허무주의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허무주의의 세 번째 약점으로 제한된 형태의 실천적 허무주의도 잡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결국 한계에 봉착하고 마는 것을 지적했다. 아무 것도 없는데 무엇을 부정한다는 말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므로 허무주의는 결국 자가당착적이고 냉소주의로 귀결되고 말 것임을 보았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을 자세히 보면 매우 정교한 질서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질서가 우연이 아니라 전능한 인격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세계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삶의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세상은 매우 아름다운 창조주의 작품이며 따라서 그 분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타락으로 변질되고 허무함에 굴복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구약 성경의 지혜서인 전도서 1장에도 보면 허무주의적 세계관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허무주의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반복적이고 순환적이며 아무 의미가 없이 헛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도서의 결론을 보면 우리가 인격적인 창조주를 인정한다면 이 세상은 매우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이며 우리는 이 세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청지기이고 따라서 현재의 삶 속에 그 분의 뜻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심판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양심만으로 어느 정도 도덕이나 윤리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 사회나 국가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합의한 법규에 의해 그것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인간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임을 지적할 수 있다.

넷째로 허무주의는 예술에도 종말을 고함을 보았다. 많은 현대 예술, 즉 문학, 회화, 연극 및 영화 등은 허무주의를 사상적 주제로 삼고 있다. 가령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그의 창조적 생각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소변기를 실제로 샘물로 사용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성을 인정하더라도 실용성을 말할 수는 없다. 사실 모든 예술품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구성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준다. 문제는 그 메시지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가령 베케트의 “숨소리” 또는 『쿼드』(*Quad*<sup>30</sup>)라는 희곡조차도 나름대로의 구성과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이 작품이 인간의 무의미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의 깊은 마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So what)?’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작품은 모든 삶은 허무하다는 것을 주장하므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종말을 재촉할 뿐 보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삶으로 인도하지 못함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다.

반대로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하나의 예는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스티(Josti) 밴드 오케스트라’이다. 이들은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장애인들이다. 이 단체는 약 50년 전에 한 목회자가 몇몇 장애인들과 함께 악기 클럽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이 취미 클럽을 운영하였는데 점점 참가자들이 늘어나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된 것이다. 각자 다양한 장애가 있지만 이에 대해 비판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지는 대신 그들에게 남아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여 자신에게 맞는 악기를 찾아 함께 연주하면서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다. 이들이 연습하는 동영상을 보면<sup>31</sup> 심지어 많은 분들이 악보조차 읽을 수 없지만 각 음에 색깔을 붙여 연주하며 여러 도우미들이 함께 섬긴다. 이 단체의 슬로건은 ‘각 사람은 특별하다(Iedereen is bijzonder)’이다. 비록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가진 독특한 점들을 살리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는 허무주의를 넘어 장애인의 삶도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허무주의를 주장했던 사

30) Samuel Beckett, *Quad* (Editions de Minuit, 1997).

31) [www.jostiband.nl/concerten/repetities](http://www.jostiband.nl/concerten/repetities).



람들의 생애 마지막 모습은 한결같이 불행했음을 우리는 보았다. 하지만 조스티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하는 얼굴에는 기쁨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매년 연말에는 네덜란드의 왕가 및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음악회를 하는데 전국에 생중계되며 연주가 끝난 후 왕이 직접 꽃을 들고 와서 축하해 주는 장면은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명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허무주의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지적했다. 사람은 본래 허무주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조스티 오케스트라와 비슷한 사례로 독일의 빌레펠트(Bielefeld)에 있는 ‘벤틀(www.bethel.de)’을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약 150년 전인 1867년에 간질병 환자들을 돌보는 복지시설로 한 내륙 선교단체(Inneren Mission)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에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나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프리드리히 시몬(Friedrich Simon)이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그 후 프리드리히 폰 보델슈빙(Friedrich von Bodelschwingh, 1831-1910)은 이 벤틀을 유럽에서 가장 큰 사회복지 시설 중 하나로 발전시켰다. 그 후 지금까지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곳을 통해 허무주의나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자세로 재활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름대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는 이 장애인들을 쓸데없는 존재들로 간주하면서 가스실에 넣어 죽이려고 했으나 이곳에 있던 많은 분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장애인들을 숨겨주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있고 실례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허무주의란 이신론이 초월적인 신 존재만 인정하고 내재적인 신을 포기한 후 자연주의가 등장하여 이 초월적인 신도 포기하면서 초래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는 말했지만 그 결과 삶의 의미도 사라지고 만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이에 대해 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허무주의 세계관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허무주의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대표적인 사상가들은 누구이며 이 세계관의 장단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 후 단점들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고찰해 보았다.

이 세계관은 이신론과 자연주의가 낳은 당연한 결과물로서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들을 부정하면서도 니체 같은 경우 나름대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이 세계관에 대해 나름대로의 장점들을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러 약점들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허무주의적 사상가들의 불행하고 비참한 종말이 분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도 이 세계관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세계관에 대해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세계관들이 있을 수 있으나 기독교 세계관은 보다 분명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삶은 분명히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을 실천적인 삶으로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반 투르게네프, 이항재 역, 『아버지와 아들』 서울: 문학동네, 2012.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김연경 역, 『악령』 서울: 열린 책들, 2009.
- Beckett, Samuel. *Waiting for Godot: A Tragicomedy in Two Acts*, New York: Grove Press, 2011.  
\_\_\_\_\_. *Quad*, Editions de Minuit, 1997.  
\_\_\_\_\_. *Endgame and Act Without Words*, New York: Grove Press, 2009.
- Feuerbach, Ludwig. *Das Wesen des Christentums*, Anaconda Verlag, 2014.
- Gertz, Nolen. *Nihilism and Technology*, Rowman & Littlefield International, 2018.  
\_\_\_\_\_. *Nihilism*, The MIT Press, 2019.
- Hegarty, Paul. "Noise Music" *The Semiotic Review of Books*. 16(1-2):2. (Ontario: Lakehead University. 2006).
- Jacobi, Friedrich Heinrich. *Friedrich Heinrich Jacobi's Werke*, Vol. 1. Forgotten Books, 2019.
- Kafka, Franz. "The Watchman", *Parables and Paradoxes*, New York: Schocken Books, 1961.  
\_\_\_\_\_. *Der Prozess*, Anaconda. 2006.
- Nietzsche, Friedrich. *Also sprach Zarathustra: Ein Buch für Alle und Keinen*, Bern: schattenlos Verlag, 2019.  
\_\_\_\_\_. *Der Wille zur Macht*, Jazzybee Publishing, 2012.  
\_\_\_\_\_. *Die fröhliche Wissenschaft*, Nikol, 2017.
- Sire, James.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 View Catalog*,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2009. 김현수 역, 『기독교와 현대사상』 서울: IVP, 2007.
- Stevens, Brett. *Nihilism: A Philosophy Based In Nothingness And Eternity*, Manticore Press, 2016.
- [www.jostiband.nl/concerten/repetities](http://www.jostiband.nl/concerten/repetities) (2019.12.01. 검색).  
[www.bethel.de](http://www.bethel.de) (2019.12.01. 검색).  
[www.iep.utm.edu/nihilism](http://www.iep.utm.edu/nihilism) (2019.12.01. 검색).  
[nihil.org](http://nihil.org) (2019.12.01. 검색).  
[abissonichilista.altervista.org](http://abissonichilista.altervista.org) (2019.12.01. 검색).

## 허무주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최용준 (한동대학교)

허무주의란 모든 삶의 의미를 부정하는 세계관이다. 따라서 이 세계관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이며 동시에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다. 하지만 이 허무주의는 지금도 인터넷 웹사이트(nihil.org, abissonichilista.altervista.org)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세계관은 나름대로 몇 가지 매력적인 장점들이 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단점들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 허무주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찰한 후 니체를 포함한 대표적인 사상가들을 언급한다. 그 후 이 세계관의 장단점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해보고 나아가 이 허무주의의 약점들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은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제시한다.

**주제어:** 허무주의, 무신론, 인본주의, 니체, 기독교 세계관